

“봄 피크닉은 여기로” 곡성 노란 뚝방마켓 5일 개장

수공예 디자인 소품·직접 재배한 농산물 등 인기 300m 뚝방 거리에 매회 평균 60팀 이상 셀러 참여

곡성군의 로컬 플라마켓 ‘뚝방마켓’이 3월 5일 새봄과 함께 돌아온다. 뚝방마켓은 2016년 주민들을 주축으로 시작했던 플라마켓이다. 열은 시냇물이 흐르는 곡성천을 끼고 뚝방마루를 그늘 삼아 다양한 수공예품과 먹거리, 문화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 마켓이 열리는 약 300m 뚝방 거리에는 매회 평균 60팀 이상의 셀러가 참여할 만큼 꽤나 규모 있는 마켓으로 자리잡았다. 창작자들의 독특한 감성을 담은 디자인 소품, 농장에서 직접 만든 수제 요거트, 직접 재배한 건강한 지역농산물 등이 인기가 높다. 올해는 섬진강이 흐르는 깨끗한 곡성군의 장점을 살려 친

환경 슬로우 푸드 관련 품목을 확대한다. 군이 물건을 사지 않아도 지역민들과 여행자들 사이에서 뚝방마켓은 피크닉 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시골향 가득한 여유로움과 마켓 특유의 분주함이 만들어낸 낯선 조합이 독특한 미감을 느끼게 한다. 마치 신인상주의 화가 쇠라의 그림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과도 같은 풍경이다. 특히 마켓 거리를 휘감은 노란 그늘막은 뚝방마켓의 상징이 됐다. 단골 방문객들은 곡성에서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것이 개나리꽃도 벚꽃도 아닌 노란 뚝방마켓이라고 말할 정도다. 각종 문화 공연과 전시도 뚝방마켓으로 발

길을 이끈다. 문화장터를 표방하는 만큼 지난해 견생조각전, 사생대회, 뚝방라디오 등 매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졌다. 올해도 요가 클래스, 마리오네트 공연, 물 수제비 뜨기 등 방문객을 즐겁게 할 프로그램들과 크고 작은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뚝방마켓 관계자는 “뚝방마켓은 큰 마음을 먹고 오는 곳도 아니고, 이것저것 복잡한 준비가 필요한 곳도 아니다. 별다른 일 없이 발걸 닿는 대로 가는 산책길처럼 편안하게 방문하셔서 살가운 강바람에 흔들리며 다가오는 새봄을 맞이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뚝방마켓은 오는 3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천변(읍내리 832-29)에서 열리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 기차당 뚝방마켓 협동조합(061-362-2753)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기동취재본부



화순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추진

3월 21일까지 신청·접수...급속 배관·퓨즈 콕 등 안전장치 교체비 지원

화순군이 가스 사고 취약 가구의 시설물 개선을 지원한다. 화순군은 6250만(국비 2500, 군비 2500, 자부담 1250) 원의 예산을 들여, LPG 용기의 안전장치를 교체할 25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3월 21일까지며, 고무호스 사용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받은 적이 있는 가구, 여건상 개선이 불가능한 가구, 가스레인지와 가스온수기를 하나의 용기로 사용하는 가구, 주택이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 교체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LPG 용기의 급속 배관 교체, 퓨

즈 콕 등 안전장치 설치·교체비 25만 원 중 20만 원이며, 자부담은 5만 원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2030년 말까지 LPG 용기의 압력조정기부터 중간밸브 고무호스를 급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의무화됐다”며 “고무호스 사용 가구는 기한 내 사업을 신청해 교체 비용을 지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061-379-3166)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기자

산림청·전남도 전폭 지원 구례 대형 산불 막았다

자칫 대형화될 산불이 산림청 및 전남도의 신속한 위기관리 지원으로 일촉즉발의 위기를 피했다.

군은 2일 지난 2월 25일 오후 1시경 구례군 간전면 효곡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건조한 날씨와 바람을 타며 확대돼 백운산으로 옮겨가는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있었으나 산림청 헬기와 전남도 지자체 임차 헬기가 긴급 투입돼 산불제압을 막았다고 밝혔다.

이날 발생한 산불은 인근 주민이 예초기로 고사리밭을 정리하는 과정에 스파크에 의한 불꽃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119 신고를 받은 즉시 지휘차, 진화차량, 공무원 등 진화인력이 즉시 출동하였고, 산림청 및 전남도 등 헬기 11대가 긴급 출동하여 진화작업에 돌

입하였으나 건조한 날씨와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접한 임야를 태워 야간산불로 진행되어 이튿날까지 산불진화 작업을 벌였다.

군에서는 당시 산불 상황으로 이처럼 산림청·전남도 임차헬기가 출동하지 않았다더라면 주불을 잡을 수 없었으며, 자칫 백운산으로 확산되어 큰 재앙으로 이어질 뻔했다고 안도했다.

김순호 군수는 “현장지원부서를 설치하고 산림청 상황실과 긴밀한 협력을 하며 지원이 없었다면 큰 산불로 이어지는 재앙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산림청 및 전남도청의 아낌없는 지원과 진화에 참여해주신 소방대, 인근 시군 및 산불진화대원 모두에게 감사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나주시, 청렴도 향상 총력전 돌입...종합 2등급 목표 사활

부서별 청렴시책 추진계획 보고회

나주시가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을 목표로 상위권 제도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나주시는 2월2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정찬균 부시장 주재로 32개 실·과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해 종합청렴도 결과에 대한 반성과 함께 내부 공직자의 청렴분야 관심도 제고를 위한 개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1부서 1시책’을 토대로 부서 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발굴한 53개 청렴시책 추진 계획과 올해부터 개편된 청렴도 측정 방법을 공유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년



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나주시는 직전년도에서 한 계단 하락한 종합 청렴도 4등급을 받았다.

시는 올해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하는 청렴 나주 구현’을 비전으로 4대 전략과제 53개 시책을 추진한다. 기동취재본부

담양군, 제10회 송순문학상 작품 공모

담양군이 명양 송순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담양만의 특색 있는 문학상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제10회 송순문학상 작품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는 시(시조)와 소설 2개 분야로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담양을 소재로 하거나 담양 관련 인물과 관계된 창작품 중 미발표작 또는 공모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2021년 3월 1일) 발간된 단행본이면 된다. 공모는 오는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담양=박종영기자

며 담양군청 문화체육과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0월 중 당선작 선정 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2,000만원, 우수상 1명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을 수여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문화체육과(☎061-380-2803)로 문의하면 된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